암울한 위기 속에 열린 파티의 힘

(에스더 6:1~14)

1. 그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2.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3.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4.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5.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6.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7.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8.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9.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암울한 위기 속에 열린 파티의 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암울한 위기 속에 열린 파티의 힘'
제목의 의미만 짐작해보면 아무리 위기가 닥쳐서 암울하더라도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말고 파티를 열어서 분위기를 쇄신해보자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정신건강에 좋고 실제로 사태를 수습하는 면에서도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라도 기쁨의 일을 만들어내면 상황도 유리하게 변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긍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뒤에서 나오는 에스더를 생각해봅니다. 에스더는 삼 일을 금식한 후에 죽

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분연히 왕 앞에 나아가 민족말살의 위기 속에서 두 번의 잔치를 계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왕이 그러한 에스더를 예쁘게 보아서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자, 에스더는 잔치를 준비하겠으니 왕께서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할 것을 부탁합니다. 첫 번째 잔치가 벌어지고 왕이 다시금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자, 에스더는 내일 다시 한 번 잔치를 열겠으니 왕께서 하만과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대답을 미룹니다. 이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에스더가 금식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의 확증을 받아서 하만을 처리하기 위한 잔치를 계획하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하만으로 인해 벌어진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하만에 대해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가 왜 필요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왕은 단지 에스더가 예쁘게 보였기에 잔치에 참석하였을 뿐 위기에 대처하는 어떤 필수적인 전략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금식을 한 후에 두 번의 잔치를 열기로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이 잔치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특이한 점은 이틀간 이어진 두 번의 잔치에서 일어난 일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극적이고 긴박한 역전극이 일어납니다. 본문에서는 한 번의 잔치가 끝나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잔치가 끝난 날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신하에게 궁중일기를 읽게 합니다. 2~3년 전에 모르드개가 왕의 암살음모를 저지한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때에 모르드개의 공로에 대해 어떠한 포상도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기에 반란을 막은 공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급이 컸다고 합니다.
왕이 모르드개에게 상을 주기 위해 신하들과 논의하던 중에 마침 하만이 나타납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궁전 뜰에 찾아온 터였습니다. 왕과 하만의 생각이 서로 상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하만을 불러 큰 상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자, 하만은 오해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상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이로 인해서 극적인 역전극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하루 만에 상황이 역전되어 하만은 에스더가 두 번째 연회에 끌려가듯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박하고도 기상천외한 역전극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무엇 하나 한 일이 없습니다. 에스더는 단지 두 번의 잔치를 계획하였고 추진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만이 모르드개를 달기 위해 높은 장대를 준비하였지만 결국 그 장대에 자신을 매달게 되는 일이 이 잔치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이 위기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제1계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만에 대한 경배가 신에 대한 경배

에 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개는 신앙적 양심으로 다른 신을 섬기기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서 민족말살의 위기가 닥쳤던 것입니다. 제1계명에서 신은 곧 내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꼭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더라도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신입니다. 기쁨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계획한 이 두 번의 잔치는 전략이 아닌 선민의 자존심의 표현이자 신앙고백이었습니다. 악한 이방인 하만에 의해서 선민 전체의 말살위기가 벌어집니다. 이때에 제1계명을 지키는 선민으로서는 자존심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민족말살의 위기 속에서도 선민은 결코 우울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자존심을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선민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이러한 선민에게는 이방인 한 사람이 일으킨 위기는 우울함과 불평불만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마치 오기를 부리듯이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하만의 위기는 결코 하나님으로 인한 마음의 기쁨을 짓누를 수 없다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신앙적 자존심의 표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 후에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죽음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 자존심의 표현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심령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에스더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가 유다에 침공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금식이 끝나고 나자 성가대를 앞세워서 적군을 향해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찬송을 합니다. 기쁨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적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우월한 군사력으로 진치고 압박할지라도 선민으로서의 기쁨을 잃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강대한 적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자존심을 표현했던 것이고 기쁨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기뻐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기쁨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보면 바벨론의 침공을 예견하면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처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17~18절에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기쁨을 선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나라 전체가 망할 위험을 보면서도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자존

심의 표현이고 신앙고백입니다.
에스더가 이러한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의 표현으로서 두 번의 잔치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동안에 왕처럼 떵떵거리던 하만의 위세가 하루도 못 되어서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동안 에스더나 모르드개는 어느 한 부분이나 단계에도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을 짓밟고 근심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가져다주는 사건들이 다가옵니다. 이때에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민족말살의 위기 속에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속없는 여자의 행동 같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존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신앙의 자존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돈 문제가 생겼다면 "돈아! 어찌 네가 나를 걱정과 근심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느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 당신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극히 작은 피조물인 돈아! 너는 나에게 걱정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자녀의 문제가 나의 기쁨을 없애고 우울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존심의 표현이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페르시아를 호령하던 하만을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내치시고, 말살위기에 처했던 모르드개가 하만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시는 대역전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도 선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과 기쁨을 선언하자 모래알처럼 많았던 적군들이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기쁨에는 수동적 기쁨과 능동적 기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피노자는 기쁨의 개념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사용한 철학자입니다. 수동적 기쁨은 마치 축구경기를 보다가 우리나라가 이기면 나도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능동적인 기쁨은 이성에 기반을 둔 기쁨입니다. 욕망이 향하는 방향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능동적 기쁨의 근거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이성에 근거된 능동적 기쁨의 가능성은 무척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적 기쁨과 능동적 기쁨의 개념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공로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지는 일이 주어져야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기쁨을 선언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과 이성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절대적으로 합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시겠다고 선택한 내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우울해 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물리치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은 일어날 수 없기에 선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이 실제가 되기까지는 십자가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나를 짓밟는 모든 상황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괴롭히는 세상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들어온 나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때에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잔치를 열었던 것과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 압도당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주님의 부활과 승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기쁨의 선언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짓눌린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존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로 약정된 선민으로서 세상 일로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존심이 드러나서 표현되면 두 번의 파티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이끄시기 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에스더가 파티로 자존심을 표현했듯이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로 자존심을 표현하게 해 주시고, 두 파티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여생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